

캐나다 AIAC 총회 참석 곽병구 상근부회장 연설

우리협회 郭炳球 상근부회장이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밴프시에서 열리는 제33차 AIAC(캐나다항공우주공업협회) 총회에 국내인 사로는 처음으로 초청되어 특별강연을 했다.

「北美, 亞·太지역의 국제협력」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서 郭부회장은 「한국항공공업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특별 연설을 한 뒤 질의 및 토론에 응답했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의 항공업계, 연방 및 지방정부요원, 외교관 관련 철회 등에서 약 6백여명이 참석했다.

캐나다는 작년말 현재 세계 6위의 항공우주산업국이며 67억달러의 매출실적을 갖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機동 중 소형항공기 생산에서 세계 선도그룹에 속하고 있다.

AIAC는 캐나다 항공우주산업의 생산과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로 1백20여 회원사를 갖고 있다.

ESA 대표단 내한

유럽계와 상호설명회 개최
향후 협력방안도 협의

우리협회와 ESA(European Space Agency)의 공동주관으로 한국과 유럽회사의 상호설명회가 지난 9월 30일 캐피탈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의 설명회는 ESA 직원과 6개 회사 대표 등 8명이 방한하여 각회사의 구체적인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우리 협회와 삼성항공, 대한항공, 삼성전자, 현대기술개

발, 한라중공업, 금성정보통신, 만도기계, 금성정밀, 현대전자, 두원중공업, 우주항공산업등 회원사 관계자가 참석했고 유럽에서는 ESA 직원과 영국국립우주센터(British National Space Center), 독일의 Deutsche Aerospace, TGV고속전철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Alcatel사, Software 전문회사인 Cray사, 우주관련 부품 전문업체인 IG사, 통신탑재체 전문회사인 Tecnologica사등의 국제담당자가 자사 설명과 아울러 한국업체와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오전에는 유럽 각회사의 소개와 질의응답을 하고 오후에는 한국업체의 회사소개 및 질의응답후 각사의 개별면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郭 상근부회장 토론 참가

제6회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움에

공군주관으로 10월 7일 개최된 항공우주 심포지움의 항공우주과학기술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개최된 제2분과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 우리협회 郭병구 상근부회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동 심포지움 제2분과는 ▲프랑스 우주개발계획과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협력(프랑스, CNES 이삭레바 국제관계국장) ▲아·태지역에서의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제안(중국, 우주과학기술 국제교류센터 쟈룽임 고문)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추진방향과 전략(항공우주연구소 홍재학 소장)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현황과 전망(한국통신 위성사업단 황보한 단장)등 4개 주제가 발표된 뒤 질의응답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郭부회장은 우주기술을 산업화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시급함과 정부차원에서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미흡 등을 지적하고 위성체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사업계획등 검토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선정위원회 개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형항공기 개발사업과 관련한 선정위원회(15명)가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선정위원회는 당초 중형항공기 주관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1개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업계가 삼성항공을 주관사로 자율합의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항공의 주관회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삼성항공산업(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결과 동사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하고/이에 따라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개발기관인 컨소시엄의 주관회사로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동 사업은 해외협력선과 협상이 전제된 국제공동개발사업이므로 기술개발종합계획동 세부계획은 향후 정부당국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업체 조사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부품국산화 양부문에 희망별로 당국에 보고

협회는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컨소

시엄 참여 희망업체를 조사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제출요구 시한까지 협회에 컨소시엄 참여희망을 제출한 회사는 32개사이며, 그중 비회원사는 수성공업사와 현대항공산업 등 2개사이다.

한편 삼미금속과 세일중공업이 추가로 참여를 신청하여 주관회사인 삼성항공을 포함 총 35개사로 국내 컨소시엄이 구성될 전망이다.

그와는 별도로 협회는 중형항공기 부품국산화 참여 희망품목을 조사하여 상공부에 제출하였는데 앞에 언급한 컨소시엄 참여 희망업체 32개사를 기본으로 작성되었다.

참여 희망부문을 살펴보면 기체부문에 대우중공업 등 16개사, 보기부문에 금호 등 20개사, 엔진부문에 대한항공 등 7개사, 전자부문에 금성정밀 등 3개사, 소재부문에는 대신금속 등 10개사가 신청했다.

각 부문별 참여희망업체는 다음표와 같다.(가나다순)

〈중형항공기 컨소시엄 참여 희망업체〉

구분	기체	보기	엔진	전자	소재	구분	기체	보기	엔진	전자	소재
금성정밀			●			서울차륜공업		●			
금호		●				서울차체공업	●	●			
기아기공		●				수성공업사	●				
대신금속					●	오리엔탈공업	●	●			
대우중공업	●	●	●	●	●	은유항공정밀	●	●			
대한항공	●	●	●	●		재영금형정공					●
대흥기계공업		●				천지산업		●	●		
덕산항공산업	●					한국로스트웍스	●	●	●		●
동명중공업		●				한국중학기계	●	●	●		
동서항공부품	●					한국화이바	●	●			●
동양강철					●	한리중공업	●				
동양노즐공업		●				한일단조공업					●
두원중공업	●	●				한화		●	●		●
만도기계		●				현대기술개발	●	●			
삼선공업					●	현대항공산업	●				
서울엔지니어링	●	●	●			우주항공산업	●				

대표단 15명 중국방문 중형항공기 관련 협의위해

중국과의 중형항공기 공동개발 실무협의를 위한 대표단 15명이 10월 6일 북경으로 출발했다. 대표단은 상공자원부 이진우 기계소재공업국장을 단장으로 한 산·학·연의 관계인사로 구성되었는데 협회를 대표하여 김영갑 기획관리사가 동행했다. 대표단은 서안항공기 제작공장을 방문하고 2차에 걸친 항공기 분과위원회를 연후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제3차 이사회 개최

협회는 10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회원 가입, '94년 정기감사 결과 보고 등 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대원 회장이 주재한 동 이사회 결과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수성공업사는 93. 7. 7부로 상공부에 사업신고가 되어 있어 협회 가입이 승인되었으나, 세일중공업은 현재 사업신고

중에 있어 상공부에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협회가입을 보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차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할 경우 정책위원회 등 분과위원회에서 1차심의후 이사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추가 경정예산(안) 및 94년 정기감사 결과보고(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